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鍾仁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720-9215

2014년 갑오년 시조 위양공부군 시향 성황리 봉행 경향 각지에서 남녀노소 2천여 명의 후손들 참사

시조시향일 변경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변화에 순응하는 필연적 사항이자 한문의 후손들과 미래를 위한 잘된 결정”
참사일가들 중앙회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와 성원 이어져...



갑오년 시조시향이 엄숙하게 봉행되고 있다. (촬영:元敎)



갑수중앙회장이 시향에 참석한 일가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元敎)



시조시향헌관 좌로부터
初獻官: 甲洙 중앙종친회장
亞獻官: 吉洙 서원군파회장
終獻官: 三郎 서울청장년회장

중앙종친회(회장 甲洙)는 지난 10월 11일 (양력 10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의 묘역에서 2천여 명의 일가들이 참사하여 성황을 이

룬 가운데 2014년도 갑오년 시조시향 제례를 엄숙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甲洙 중앙회장, 아헌관에는 吉洙서원군파회장, 종헌관에는 三郎서울·수도권청장년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道洙판서공파감사가 집례를 하였다. (제관 분방 별항)

금년도 2014년부터는 중앙회 정기총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양력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변경한 후 시조시향을 봉행하는 원년의 해로서 화창하고 청명한 10월의 가을 주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2천여 일가분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청장년, 청소년을 비롯해 가족단위의 남,여 후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으로써 시향일 변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향후로는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고무적인 기대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욱이 당일 참사한 일가분들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가들과 함께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을 전하는 한편 시향일 변경 결정에 대해 한결 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관련기사 2~5면)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品階)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오늘날의 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벽상공신(壁上功臣)이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 서기 940년(태조 23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양쪽 벽(壁)에 고려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특별히 큰 공을 세운 공신 30명의 초상(肖像)을 그려 넣으면서 비롯된 호칭이다.

속리산맥을 타고 내려와 황간 땅에 이르러 우뚝 솟은 지장영봉(芝庄靈峰)은 사위(四圍)를 거느리고 멀리 백리에 뻗쳐 영기(靈氣)가 모였으니 이곳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里)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한학(韓學)을 일으켰다.

갑오년 시조시향 제관 분방

- 初獻官: 甲洙 중앙종친회장
- 亞獻官: 吉洙 서원군파회장
- 終獻官: 三郎 서울청장년회장
- 執禮: 道洙 판서공파감사
- 大祝: 吉洙 청원위파고문
- 都陳設: 萬春 강릉시
- 陳設: 奎昇 청원위파이사
- 謁者: 一煥 제전부회장
- 奉香: 相南 서울시
- 奉爐: 光錫 서울시
- 司樽: 무산 서울시
- 奉爵: 仁錫 서울시
- 奠爵: 相皓 서울시

시조시향 후 많은 일가들『청한각』참배

청장년·청소년 후손들과 뜻 깊은 시간 “휴일이라 가능”

시향을 마친 후 많은 일가들은 각 지역종친회와 종파문중별로 버스 또는 승용차를 이용 젊은 후손들과 함께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 위치한

시조탄생유지를 성역화한 청한각을 참배하고, 진입도로공사현장도 둘러보면서 휴일이었기에 뜻 깊은 일정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4위 선조 갑오년 시향 봉행 시조묘역내 4위단에서

초헌관 相旭 충청남도회장
아헌관 相玉 전북 고창군회장
종헌관 東一 여명공파회장

지난 10월 11일(토) 시조시향에 이어 오후 시조묘역 내 4위단(四位壇)에서는 2세조, 3세조, 4세조, 5세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갑오년 시향이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상욱 충남회장, 아헌관에 상욱 고창군회장, 종헌관에 동일 여명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어 聖愚(연천시)일가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시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조 용호군 교위군 휘 영(龍虎軍校尉公 諱 穎), 3세조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조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조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4위단(2·3·4·5세조)에서 제례를 올리는 후손들 (촬영 : 元敎)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 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

을 모시고 매년 시조 시향일에 시향을 봉행하고 있다.

1985년 4위 추모단을 시조묘역 내에 모시기 전까지는 전남 영광에 모신

6세조 예빈경공(禮賓卿公·諱 光胤)의 추원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시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려왔었다.

갑오년 4위단 시향 제관 분방

- 初獻官 : 相旭 충청남도회장
- 亞獻官 : 相玉 고창군회장
- 終獻官 : 東一 여명공파회장
- 執禮 : 聖愚 연천시
- 大祝 : 萬春 강릉시
- 陳設 : 泰洙 울산시
- 謁者 : 輪洙 제전부장
- 奉香 : 相南 서울시
- 奉爐 : 光錫 서울시
- 司樽 : 무산 서울시
- 奉爵 : 仁錫 서울시
- 奠爵 : 大錫 경기도

갑오년 산신제 제관 분방

- 헌관 : 有煥 청주시
- 집례 : 到榮 인천시
- 축 : 一煥 제전부회장

사무처

- 접수 : 相一 서울특별시
- 到記 : 大熙 충의공파 範錫 서울특별시
- 姆 프 : 鍾仁 중앙회 상무 相先 서울특별시
- 촬영 : 元敎 사진작가

서울·수도권청장년회원 20여명

시조시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청장년회원 기념촬영. (시향봉사로 일부회원은 참여를 못함) (촬영 : 元敎)

2천여 명의 후손들이 참사(參祀)한 2014년도 갑오년 시조시향 및 4위 선조(2·3·4·5세조) 시향과 시향 전에 거행된 효자·효부상 표창행사가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전준비와 시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20여명의 서울·수도권 청장년회(회장 三郎) 회원들과 일부 임원들을 포함한 일가들의 희생적인 자원봉사가 있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서울·수도권청장년회 회원 20여명과 일환제전부회장, 윤수제전부장, 판서공파(상영회장, 도수감사, 길수고문 등), 상일, 대희, 범석, 만춘일가 등은 시향일 하루 전 혹은 이를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 별채에서 합숙을 하면서 시향이 끝날 때까지 ① 도포와 예복관

리 ② 앰프설치 및 관리 ③ 차량 출입통제용 차단기 설치 및 잠상인 통제 ④ 헌성금 접수대 설치 및 접수 ⑤ 현수막 설치 ⑥ 효자·효부상 수상자 관리 ⑦ 묘역 진입로 삼거리에서부터 헌병대 앞까지의 도로에 대형버스 주차유도 ⑧ 시조시향 예행연습 및 천막설치 ⑨ 식권 및 도시락과 기념품 보급 ⑩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서울·수도권청장년회 자원봉사자 명단

삼랑(회장), 원교(고문), 상분(총무), 영남, 광석, 형식부부, 창근, 광수, 기철, 상남, 상선, 인호, 병규, 도영, 종인부부, 의덕, 재호, 삼녀, 영자, 옥분, (무순)

甲洙회장, 효자·효부상 시상식 인사말

시조시향은

100년, 1000년 이상 연면히 이어나갈
한문의 아름다운 가업

젊은 후손들에게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주고
화합·번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길

장학사업 활성화로

청주한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이자
국가의栋梁(棟樑)으로...

갑수중앙회장은 시조시향에 앞서 식전행사로 거행된 효자·효부상 시상식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시조시향은 특별히 양력으로 변경하여 봉행하는 뜻 깊은 원년의 해이다. 음력 10월 1일은 날씨가 춥고 눈, 비가 내리는 등 일기가 안 좋아 시향 준비와 제례봉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이 많은 일가들이 제반 여건을 감안 시기를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또 정기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오늘 시향을 모시게 되었다.



甲洙중앙회장

시향을 변경한 이유는 젊은 후손들은 직장, 학업, 생업 등으로 주중에 봉행되는 시향에는 참사를 못한다. 노인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 또한 참여하는 일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조시향은 앞으로도 100년, 1000년이상 한문의 아름다운 가업으로 연면히 이어나가야 한다. 젊은 후손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상을 알고 뿌리를 찾아 정체성을 정립하고 한문이 화합·단결·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 의견을 달리고 반대하는 일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대다수의 의견은 양력으로 변경하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음력 10월 1일은 양력 11월 22일이고 절기 상 소설이다. 오늘같이 좋은 가을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시향을 모시게 됨은 모두 시조할아버님의 음덕이라 생각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제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직접보시는 것처럼 묘역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새롭게 보수를 함으로서 시조묘역의 정화사업도 마무리되었다.

의 후 영동의 시조탄생지에서 봄철인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탄생일을 의제하는 축하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나는 내년 2월이면 6년의 임기를 초과없이 마치고 이어서 훌륭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조묘역의 정화사업을 하였고 청한각을 건립하였으며 인터넷쪽도 마무리 되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장학기금을 20억원정도 인계받아서 현재 25억원으로 증액 예치하고 있지만 솔직히 부족한 실정이다. 후손들에게 매년 1억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억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 임기 전까지 35억원 조성을 목표로 10억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훌륭한 선조분들에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도 전무한 세분 총리를 연속으로 배출한 훌륭한 가문이다. 타성씨로부터 많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확충해야만 한다. 임기 내에 35억원을 조성하는 과업까지 마무리하여 후임회장께 인계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 말하고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오늘 수상하신 다섯 분 모두는 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까지 모시고 효행을 실행하고 계심에 존경과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면서 아울러 이러한 훌륭한 귀감이 되는 효심이 청주한문의 100만 전종원에게 전파돼서 종원 모두가 효자 효부로 존경받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충북 영동의 시조탄생유지에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러일가들의 성금을 모아 수려하게 건립한 청한각은 중국 현지에서 최고 재질의 석재를 수입 건축함으로써 앞으로도 천년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보존이 잘될 것이다. 시조묘역과 더불어 대성씨 문중 중에서도 최고로 훌륭하게 성역화하여 관리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의 시조이신 위양공부군은 훌륭한 분이시다. 고귀한 업적과 유지를 기리는 한편 유적 또한 잘 받들고 보존해야 한다. 해서 가을에는 이곳 시조묘역에서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향을 모시고, 내년도부터 일가분들과 논

중앙종친회 주관 효자·효부 5명 표창 시조묘역에서 시조시향 앞서 시장



갑수중앙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元敎>

중앙종친회(회장 甲洙)는 일가 및 외가의 후손 중 5명의 효자·효부를 선발, 지난 10월 11일 오전 시조묘역에서 수많은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시향에 앞서 표창패를 수여했다. 중앙종친회는 해마다 시조시향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손

으로서 노부모를 사랑과 정성으로 극진히 모신 아름다운 효행을 표창함으로써 점차 사라져가는 효(孝)의 중요성과 더 나아가 송조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자·효부를 선정 시조묘역에서 표창을 해오고 있다.

효자·효부상 수상자 명단

▲ 효자·효부상 (2명)

한규백·심은숙 부부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7번길 신화APT 104-1402 (천수 김포시종친회장 추천)

▲ 효자상 (1명)

한이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8번길 우성APT 103-405 (광진 경기도종친회장 추천)

▲ 효부상 (2명)

김 홍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상아맨션 205 (동석 삼재관리위원회장 추천)

김혜숙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APT 3-102 (추태 정혜공파회장 추천)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정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종보'는 독립재산이 됩니다

종보(宗報)를 받아보시는 일가 여러분. 종보 구독료가 1년에 2만원입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보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앙종친회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도 유일한 매체(媒體)입니다만 적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종보'를 구독하시는 일가분들이 '종보'는 받아보시면서 종보비를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중앙종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재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갑수 (중앙종친회장)

시조시향에 118명, 1,897만원 헌성

甲洙중앙회장, 東錫삼재회장, 楸泰정혜공파회장, 昌華광주시회장, 三郎서울·수도권청장년회장 각각 100만원 경기도종친회(회장 光傳) 돼지 3마리 (115만원 상당)

지난 10월 11일 (양력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봉행된 시조시향에 갑수중앙회장, 삼재관리위원회 동석회장, 정혜공파 추태회장, 광주시종친회 창화

회장, 서울·수도권청장년회 삼랑회장이 각각 100만원을 헌성하는 등 114명의 일가들이 1,782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으며 경기도종친회에서는 돼지 3

마리(115만원 상당)를, 충성공파 선교회장은 시조시향에 올리는 제주로 민속주 5병을 현물로 헌성함으로써 전체적인 헌성금은 1,900여만원에 이르렀

다. 이외에도 民求국방장관과 상한한 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성원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조시향에 헌성한 일가분들 118명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이름	금액
갑수(중앙회장)	1,000	회양공종중	200	수명(경남)	100	대석(경기 의정부시)	50
삼재관리위원회(동석)	1,000	감사공안산종중(강)	100	순천시종친회	100	동진(충북 충주시)	50
창화(광주시회장)	1,000	갑전(참판공파)	100	양해공파종중(치용)	100	명기(충북 영동군)	50
추태(정혜공파회장)	1,000	강릉종친회(만춘)	100	영광군종친회(상기)	100	상길(충남 태안군)	50
삼랑(청장년회장)	1,000	강화종친회	100	용준(서울 청량리)	100	상동(화성시이사)	50
김제시종친회	300	검교참판공파(영수)	100	원교(청장년회고문)	100	상만(충남 공주시)	50
서원군파종중(길수)	300	경남고성종친회(홍조)	100	익산시종친회	100	상문(충남 부여군)	50
순택(경기 광명시)	300	공주시종친회	100	인원(논산세마공종중 회장)	100	상복(충주종친회장)	50
용인상하동종중(규용)	300	관악구종친회	100	전주시종친회	100	상분(경기 수원시)	50
울산시종친회	300	광주쌍효종중(상철)	100	종률(세종시회장)	100	상욱(전북 고창군)	50
이양공파종중	300	구미시종친회	100	준석(전 서울종친회장)	100	상일(서울 노원구)	50
청양군종친회(선희)	300	근수당재경종회(필진)	100	진주종친회(명우)	100	상필(충남 청양군)	50
청장년회일동	300	금산군종친회	100	천안시종친회(민교)	100	상호(경기 연천군)	50
상기(참의공종중)	250	김해창원삼등공종중(건석)	100	충의공파종중(상학)	100	성우(충성공파)	50
근수(충남 청양군)	200	나주시종친회	100	파주교하종친회	100	아산시종친회	50
대구경북종친회(의길)	200	덕수(파주시종친회장)	100	파주시종친회	100	영암군종친회	50
대머리여명공종중	200	문열공종중	100	파주종친회금촌분회	100	정수(서울 강서구)	50
대전종친회(갑수)	200	동술(강동구 회장)	100	평석(강서구 회장)	100	진택(논산세마공)	50
부산종친회	200	동작구종친회	100	평택옥천공종중	100	창성(서울 서초구)	50
양명(상임고문)	200	명덕(경기종친회이사)	100	평해공수원종중	100	창근(서울 송파구)	50
영덕군종친회	200	"문교, 회교(영광군)"	100	포항종친회	100	형식(안양공파)	50
용인시종친회(석우)	200	부여군종친회	100	홍립(경남 창원시)	100	흥억(경기 파주시)	50
원주시종친회	200	부천시종친회(종욱)	100	화성시서신면종친회(병철)	100	윤수(서울 송파구)	50
인천시종친회(기천)	200	삼괴종친회(백모)	100	효동(중앙회고문)	100	순호(전북 전주시)	20
장훈(충북도 회장)	200	"상남(강북, 도봉구 회장)"	100	곡성군종친회	50	합 계	17,820
일섭(전북종친회이사)	200	성교(대구 중구)	100	광석(참의공파)	50	경기도종친회	돼지 3마리
참의공(휘충지)종중(근준)	200	성동광진구종친회(길수)	100	광수(영등포구회장)	50	선교(충성공파회장)	제주 5병
참의공파종중(상완)	200	성릉(경기 광주시)	100	기달(서울 강북구)	50	민구 국방부장관	화환
태안군종친회	200	성섭(중앙회 부회장)	100	기장(서울 광진구)	50	상헌 농기계조합이사장	화환
판서공송산종중(상영)	200	송탄종친회	100	기학(안동시)	50		

알림

1. 시조탄생유지 濸濸齋,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2. 따라서 濸濸齋를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한씨중앙종친회



시조탄생유지 濸濸齋 전경

정과 사랑, 아름다움이 상존한 시조시향일의 풍경

휴일이기에 시향에 참사할 수 있었다
시조시향일 변경은 잘된 결정 내년에는 더 많이 오도록 하겠다
청장년, 특히 가족단위의 청소년·여성·어린후손들 눈에 띄게 증가



35억 장학기금 조성에 전종원의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11월 25일 현재
장학기금 추가조성 약정 및 납입 7억 원

청주한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이자
국가의栋梁(棟樑)으로 육성하는 일

※ 장학기금 출연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재)청한장학회

※ 장학기금 출연금 납입 방법

◎계좌송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지로송금 : 무 정액 지로용지 이용 (종보 첨부)

청한장학회 기금납입용

◎방문납입 : 중앙총친회 사무실 방문 및 납입

‘제7교 대동족보’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대동족보를 근간으로 편찬하는 제7교 대동족보는 보책(譜冊)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참여하는 일가분들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파문종과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함께 올바른 내용이 입보 될 수 있도록 인터넷대동족보의 수단신청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족보는 보책 발간 전 12월 말까지 최종 업데이트 예정. 가급적 문종과 지역단위 취합 신청)

한석영 (전)중앙회부회장 별세

한석영(사진) (전 중앙회부회장)께서 지난 10월 1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석영부회장은 오래 전부터 종친회에 참여하면서 종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왔으며, 문정공하 영흥공파회장, 친목모임인 청운회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청한산악회 활동에도 의욕



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중앙총친회에서 추진한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청한각』을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으며, 인터넷족보 편찬사업 등 종사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시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정보비 (9~10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가섭(경남 하동군)	100
승일(경기 고양시)	100
상호 이사(충남 부여군)	60
가관(서울 성동구)	50
명철(서울 성동구)	50
총일(경남 김해시)	50
현택(서울 노원구)	50
상복(전북 익산시)	30
상옥 이사(경북 상주시)	30
상준(경기 군포시)	30
술희(경북 구미시)	30
진우(경남 양산시)	30
경재(서울 중구)	20
경호(전북 임실군)	20
규현(서울 중랑구)	20
기창 이사(충남 당진시)	20
길수(세종시 전통면)	20
달우 이사(경기 부천시)	20
대삼(제주 제주시)	20
덕근	20
덕근(경남 거제시)	20
도연(경기 군포시)	20
두현(대구 북구)	20
만구(경기 고양시)	20
만희 이사(전북 전주시)	20
면희(서울 서초구)	20
병호(서울 서초구)	20
상철	20
석구 이사(서울 관악구)	20
성현(충남 당진시)	20
수동(경기 고양시)	20
승연(경기 용인시)	20
용현(경기 의정부시)	20
우석(전남 영광군)	20

이름	금액
육현(경북 영천시)	20
윤석(경기 부천시)	20
익두(인천 중구)	20
창성 이사(서울 서초구)	20
치환(인천 부평구)	20
태룡(서울 중랑구)	20
택용(서울 노원구)	20
판경(대구 달서구)	20
해남 한열회	20
회수(경기 고양시)	20
훈기(충남 계룡시)	20
기섭(서울 동대문구)	10
명석(서울 금천구)	10
합 계	1,290

장학기금납부 내역 (9~10월) 단위 : 천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755	추태(광천공민위장학회)	35,000	100,580
55	준석(이원공민위장학회)	6,500	41,000
2009	정일(정해공중중)	3,100	3,100
50	정해(정해중추태)	3,000	3,500
2010	정복(정해공중중)	2,100	2,100
37	경석(서울 강남구)	1,000	3,500
2056	관희(한인단위장학회)	1,000	2,000
884	정수(광주쌍호중중)	600	1,000
2069	영섭(한인단위장학회)	150	250
139	만춘(강원 강릉시)	100	1,350
1991	우인(서울 동작구)	100	200
510	가관(서울 성동구)	50	630
2011	경호(전북 임실군)	20	2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	390
합 계	52,730		

운영회비 (9~10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동석 부회장(삼재 회장)	1,000
상영 부회장(판서공파회장)	1,000
상완 부회장(참의공파회장)	1,000
용진 부회장(이양공파회장)	1,000
천식 부회장(회양공파회장)	1,000
영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회장)	500
의길 부회장(대구경북회장)	500
창화 부회장(광주시 회장)	500
일환 부회장(제전담당)	380
기호 고문(인천 남동구)	200
희천 고문(삼재 상임고문)	200
대현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200
호균 자문위원(울산 남구)	200
희섭 자문위원(전 대구경북회장)	200
길수 부회장(서원군파회장)	200
덕수 운영위원(파주시회장)	200
상운 운영위원(구미시회장)	200
상진 운영위원(금산군회장)	200
석우 운영위원(용인시회장)	200
용구 운영위원(진도군회장)	200
철호 운영위원(삼재 부회장)	200
홍조 운영위원(고성군회장)	200
광열 이사(강화군 회장)	200
길섭 자문위원(서울 동대문구)	100
성교 자문위원(대구 중구)	100
병수 운영위원(태안군 회장)	100
강석 이사(삼재 유사)	100
건섭 이사(회양공)	100
구현 이사(경남 진주시)	100
기중 이사(금산군총무)	100
기창 이사(충남 당진시)	100
동권 이사(삼재 부회장)	100
만주 이사(강원 원주시)	100
만춘 이사(강원 강릉시)	100
만희 이사(전북 전주시)	100
문수 이사(삼재 유사)	100
상근 이사(충남 천안시)	100
상옥 이사(경북 상주시)	100
성규 이사(서울 구로구)	100

이름	금액
성우 이사(경기 연천군)	100
수창 이사(서울 광진구)	100
순섭 이사(회양공)	100
승남 이사(삼재 부회장)	100
승주 이사(삼재 총무)	100
연수 이사(삼재 감사)	100
영옥 이사(삼재 유사)	100
용암 이사(삼재부 회장)	100
우인 이사(동작구 회장)	100
윤동 이사(경기 김포시)	100
윤희 이사(전북 임실군)	100
은수 이사(경기 김포시)	100
재운 이사(삼재 감사)	100
중호 이사(인천 남구)	100
진교 이사(경기 양주시)	100
창성 이사(서울 서초구)	100
철현 이사(삼재 도유사)	100
춘택 이사(회양공)	100
태희 이사(전북 전주시)	100
현섭 이사(광주 남구)	100
합 계	13,280

단체정보비 (9~10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삼재관리위원회(동석)	500
고성군총친회	200
진주문정공파병사공중중	200
목포시총친회	100
형지발자손총친회(철동)	100
합 계	1,100

일반찬조헌성금 (9~10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창해(경기 김포시)	100
합 계	100

청한산악회 11월 황금산 정기산행



청한산악회는 지난 11월 23일(일) 대산을 독곶리에 위치하고 있는 황금산(156m)으로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해송과 아생화가 어우러지고 다람쥐가 노니는 완만한 숲길과 때 묻지 않은 바다, 코끼리바위로 대표되는 해안절벽과 울창한 조약돌 해변, 기암괴석의 수려한 경관을 품고 있는 곳이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리한 등산보다는 자연과 대

화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친환경 트레킹이 유행하면서 이곳 황금산의 진면목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 답게 당일에도 많은 등산객 인파로 붐비었다. 산행 후 돌아오는 길에는 인근 삼길포항을 둘러 오순도순 둘러앉아 싱싱한 생선회에 술잔을 곁들이며 정담을 나누는 산행의 피로는 사라지고 일가간정감은 더욱 북돋아나는 듯하다.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관악산 산행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삼랑)는 지난 9월 14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악산을 찾아 9월의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안양시, 과천시 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는 관악산(632m)은 교통과 경관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 전사면이 비교적 가파르고 암반이 많아 쉽지 않은 등산로이지만 이날 참석회원 전원이 정상까지 산행을 완주하

여 화합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조시향일에 많은 일가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청장년회원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시조의 음덕을 기리는 훌륭한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고 봉사하고자 격려하여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11월의 정기산행은 수도권 인근 청계산(618m)을 찾아 이수봉(545m)을 등반하였다. (총무 상분)

2014년도 갑오년 고려대전 대제 봉행 청주한문의 선조 여섯 분 위패 봉안

始祖 威襄公 · 思肅公 · 西原君 · 文敬公 · 恕齋公 · 夢溪公



양력 10월 4일 첫째 토요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고려대전에서

2014년도 고려대전(高麗大殿) 대제가 지난 10월 4일(토요일) 오전 11시 제8회째를 맞이하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고려대전에서 성·충현공열사(聖·忠賢功烈士)의 공훈을 추모하고 국민단결과 통일을 기원하는 대제로서 전국의 유림단체 및 대전에 봉안된 성(姓)씨 문중 대표와 기관단체, 시민을 포함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고려선양회 주최, 향교 유림 집전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고려대전에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비롯한

34위(位)의 고려 역대왕과 64개 성씨 문중의 고려조의 충신(忠臣)·공신(功臣) 357위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시조 위양공(始祖 威襄公·諱 蘭), 사숙공(思肅公·諱 渥·9세), 서원군(西原君·諱 方信·10세), 문경공(文敬公·諱 脩·11세), 서재공(恕齋公·諱 天·11세), 몽계공(夢溪公·諱 철충·13세) 등 여섯 분 선조의 위패가 동배향위(東背向位) 화열(火列) 42~47에 모셔져 있다.

고려대전은 고려 500년 역사와 문화를 재현 재조명하고 통일의 의지를 되살리고자 착공 12년만인 지난 2007년 8월 준공식을 가졌으며 4만 1,200㎡의 부지위에 건립되었다.

서원군파 종친회 정기이사회 개최 임원 개선 및 서원사 보수문제 등 논의



정기이사회 후 서원군파 종친회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촬영元敎)

길수회장, "힘을 모아 일을 추진하면 못할 일이 없다"
중앙회 추진사업에도 적극 동참 독려

서원군파종친회(회장 吉洙)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1시 종로구 관수동소재 은행나무집에서 길수회장을 비롯 경수, 강, 상영, 운섭, 민석, 천식일가 등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 모임 개최하고 종사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어 임원 간 직무조정 및 개선을 통해 서원군파 감사에 삼석일가, 총무에 창하일가, 서정회 총무에는 기철일가를 각각 선임하였다. 또한 서정회모임과 서원군파 이사회, 총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사를 임원들의 참석편의를 위해 이사회와 총회는 중앙회의 예와 같이 겸해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서원사 시향은 제정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서원사 관리위원회 보강을 위해 민석장간공파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창하총무와 양수회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한편 서원사 지붕 기와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추후 서정회에서 논의 결정토록 위

임하였다. 또한 종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지파에 할당된 회비의 납입을 독려하고, 2015년도 시향일에 맞춰 수립 제막토록 준비 중인 서원사 건립 헌성비는 교정을 완료하고 다음날 개최되는 서정회 모임에서 헌성비의 규격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 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이 수능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함에도 경향각지에서 성황을 이루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는 위대한 서원군 할아버지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자부한다. 서원군파는 아직 인적 구성이나 재력 등 모두가 열악한 실정이지만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정해진 방향으로 매진한다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장학기금 확충사업과 인터넷동족보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소혜왕후 510주기 제례 봉행

양력 10월 18일 셋째 토요일, 서오릉 경릉에서



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덕종대왕비(德宗大王妃)인 청주한씨 소혜왕후(昭惠王后·1437~1504·14世)의 제510주기 및 덕종대왕 제557주기 제향이 지난 10월 18일(토) 정오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西五陵)내 경릉(敬陵)에서 문화재청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관, 고양시 의회 및 고양문화원 후원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인수(仁洙)일가(장간공파)가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했으며 서원군파문중에서 길수회장을 비롯 강, 윤동, 창하일가 등 30여명이 함께 참사를 하였다.

인수대비(仁粹大妃)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혜왕후는 세조(世祖) 때 좌의정을 지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諱 確(確)의 따님으로 세조가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 도원군(桃原君)의 신분으로 있던 덕종과 결혼했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왕으로 즉위하고 도원군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자 19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2년 뒤 세조 3년 9월에 세자인 덕종이 급환으로 별세하자 소생인 아들 성종(成宗)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성종 2년 부군이 덕종대왕(德宗大王)으로 추존(追尊)되면서 소혜왕후도 인수대비로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한문과 유교경전에 능통하였으며 불교에 귀의함이 두터워 범(梵) 한(漢) 국(國) 삼자체(三字體)의 불서(佛書)와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수신서이자 여성교육의 기본서로 부녀자의 예의범절을 가르친 내훈(內訓)을 저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능은 앞에서 보았을 때 왕은 왼쪽, 왕비는 오른쪽으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조성되어있는 경릉은 사적 198호, 2009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여수종친회 정기총회 및 만남의 날 행사 신임회장 창진일가 선임



여수종친회(회장 영대)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회원 및 일가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관광호텔에서 제108회 정기총회를 겸해 일가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색소폰 연주로 시작된 1부 행사에 이어 2부 정기총회에서는 영대 회장의 대회사와 경호 전남대부총장의 축사에 이어 회계보고 후 임기만료 된 영대회장의 후임으로 향후 2년간 종친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으로 창진일가(뚝소리 닷컴 대표, 6.4지방선거 시장후보)를 선임하였으며 전임 회장을 지냈던 상목, 옥천, 영대 일가에게 여수종친회 명의로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기념 촬영 후 함께한 식사자리에서는 최연장자인 기동일가, 최연소자 범진일가, 여성 칠레일가의 건배 제의가 있었으며 참석한 종친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연단에 나와서 자기소개와 덕담을 하였다. 처음으로 여성종친들도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정기총회가 되었다.

시조 위양공부군 시향일은 매년 양력 10월 둘째 주 토요일 2015년도 을미년은 양력 10월 10일 둘째 주 토요일

청소년을 포함 전국의 많은 일가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한징(韓澄) 선생, 10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조선어 사전 편찬’ 한글학자 ·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선어사전 편찬위원,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활약한 한징 선생(사진)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1886년 2월20일 서울에서 태어나 한학과 국학을 전공한 한징 선생은 1927년 계몽구락부가 추진하던 조선어사전 편찬에 1929~1932년 이윤재 등과 함께 참여하여 활동했으며, 1931년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가입, 1934년 조선어학회가 조직 맞춤법의 통일, 표준어 결정, 외래어 표기법의 통일 작

업을 준비하는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에서 사정위원과 수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사전편찬이 중단되자 조선어연구회의 우리말 사전 편찬 활동에 합류했으며, 1935~1936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표준어 사정 독회에 참여해 제1독회와 제2독회에서 수정위원에 선정되었고 1936년 4월~1942년 9월까지 조선어 대사전 편찬 전임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1942년 일제가 조선어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학회 인사들을 대거 체포하면서 선생도 옥고를 치르

다 1944년 옥중에서 순국했다.

보훈처는 평생 우리말과 글을 지키다 순국한 선생의 뜻을 기려 10월3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를 열었으며, 10월 한 달 간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사진전도 개최하였다.

호는 효창(曉蒼). 1922년부터(시대일보) · (중외일보) · (조선중앙일보) 기자 역임.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 추서.

한상현 농기계조합 이사장 ‘경제 움직이는 CEO’ 선정

최근 한상현(사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앙일보와 JTBC 공동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시상식에서 상생경영부문 리더로 선정됐다. 한 이사장은 그동안 △농기계 공급 및 수출 촉진 △중소업체



2020년까지 농기계 수출 20억불 목표달성해 우리나라가 세계 8대 농기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글로벌 농기계조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내 첨단 농기계와 우수 농자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박람회(KIEMSTA 2014)’를 10월 29일(수)부터 4일간 ‘농기계자재의 6차산업 융합으로 세계 속의 KIEMSTA 2014’라는 주제로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면적 14만㎡(부스규모 4만㎡)에 26개국 372개사가 참가하였다.

정부 지원 확대 △농기계 품질 향상 △조합원 제품 공공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하며, 회원사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상현 이사장은 “농기계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산 · 학 · 관 · 연 · 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조합은 항상 섬김과 변화를 주도하는 자세로 51년간의 역사를 발판 삼아

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박람회(KIEMSTA 2014)’를 10월 29일(수)부터 4일간 ‘농기계자재의 6차산업 융합으로 세계 속의 KIEMSTA 2014’라는 주제로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면적 14만㎡(부스규모 4만㎡)에 26개국 372개사가 참가하였다.

중앙중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중친회를 사칭, 책자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02)720-6370~1로 중앙중친회에 확인하십시오

한중천일가, 78세에 101km 울트라 마라톤 완주

‘원 없이 달렸다 명예의 전당 오르는 날까지..’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한 노익장이 있다. 평택 마라톤클럽 회원인 78세의 한중천(사진)일가이다.

지난 8월 9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열렸던 제1회 금천구 흑서기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101km, 대회 제한시간 16시간에 단 ‘12초’를 남기고 15시간 59분 48초의 기록으로 완주한 한중천일가는 그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대회만 8회를 완주했을 정도로 아마추어 마라토너로서는 베테랑이다.

울트라 마라톤을 밤새 뛰고 난 후 ‘원 없이 달렸다’면서도 여든이 되기 전에 꼭 한 번 도전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뤘으니 이제 “을 10월과 내년에 한번 더 뛰어 명예의 전당(마라톤 풀코스 10회 완주)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하였다. 달리는 게 습관이 돼서 하루라도 달리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한중천일가



는 ‘94년도에 장단지가 잘리고, 정강이에 철심을 박아야 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교통사고로 잃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것이 마라톤이었고 처음에는 5km에 도전하고, 이어 10km, 하프를 거쳐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하며 건강에 자신감을 찾았고 그간 60대 또는 70대 연령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것만도 11번이 넘는다고 한다.

매일 통복천에서 10킬로를 달린다는 한 용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울트라 마라톤은 B.C. 5세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의 전령 필리피데스가 원군 요청 임무를 띠고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이틀 동안 246km를 쉬지 않고 달렸던 데에 기인한다. 그가 며칠 후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승전보를 전하면서 죽은 데서 기원한 마라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다」

장학기금 35억 달성기념비를 시조묘역에 새로이 수립합니다

100만원이상 출연한 일가는 기념비에 각명하여 기록유산으로 보존
자랑스러운 이름을 후손들에게 기리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존 20억 달성기념비는 일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폐기 매립할 것입니다)